

‘수년간 민원 제기’ 무고·위증사범 적발

공무원 허위고소, 법정서 거짓 증언 등 광주지검, 1명 구속·47명 불구속 기소

수년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공무원을 허위 고소하는가 하면 범행을 목격하고도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등 무고·위증사범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은 1~8월 집중 단속을 해 무고사범 19명, 위증사범 37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을 구속기소 하고 47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8명은 입건했다.

이들 무고사범은 선량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나와 부당하게 조사를 받게 하고 형사처분까지 받을 위협에 노출되게 했으며 수사력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구속기소된 A(71)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년간 타인 소유 임야를 자신 소유라고 주장하며 관할 군청에 찾아가 30회 이상 민원을 제기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담당 공무원

은 수차례 해당 임야에 나가 측량을 해야만 했다.

측량 결과 타인 소유의 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군수, 담당 공무원, 측량에 참여한 지적공사 직원 등 10명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7차례에 걸쳐 고소하기까지 했다.

성매매 후 상대 남성 휴대전화로 불법 결제를 하고 남성이 항의하자 강간 및 감금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가 하면, 합의 하에 성관계하고 남편에게 발각되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목욕탕 주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고소하거나, 사기죄로 기소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위증사범들은 사실관계를 왜곡,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가짜와 범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위협에 처하게 했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이 폭행이나 성범죄, 교통사고 등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인을 돕기 위해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증언한 사례들이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무고·위증사범을 지속 단속해 ‘거짓말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발된 무고·위증사범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오늘의 날씨

광주	☁	22~27
나주	☁	21~27
장성	☁	20~26
담양	☁	21~26
화순	☁	21~25
영광	☁	22~27
함평	☁	23~28
목포	☁	23~27
무안	☁	23~26
영암	☁	22~26
진도	☁	23~26
신안	☁	22~28
순천	☁	22~26
광양	☁	21~26
구례	☁	20~25
곡성	☁	20~26
완도	☁	22~26
강진	☁	22~26
장흥	☁	22~26
해남	☁	22~27
여수	☁	22~25
보성	☁	21~25

☀ 해돋이 06:09 🌙 달뜨기 02:52
 🌅 해질 18:52 🌑 달짐 17:14

해리스 미국 대사 전남대 방문 학생단체 “광주학살 사과하라”

총장실 앞에서 40분간 농성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남대학교를 방문한 6일 광주학생 단체가 미국 정부 책임을 묻는 학생단체와 경비 업무에 투입된 경찰 사이에서 몸싸움이 일어났다.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부 등 학생 10여명은 이날 오후 3시부터 40여 분간 대학본부 총장실 앞에서 해리스 대사 방문에 반대하고 5·18 당시 미국 정부 책임을 묻으며 농성했다.

총장실 입구를 가로막고 연좌에 들어간 학생들을 경찰이 해리스 대사 일행의 통로를 확보하고자 끌어내면서 밀고 당기는 승강기가 벌어졌다.

학생들은 해리스 대사가 도착하기 전인 오후 2시 30분부터 본부 중앙현관에서 손

팻말과 팸집막을 들고 “광주학살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3시께 해리스 대사 일행이 다른 출입문을 이용해 총장실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학생들이 승강기를 타고 총장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작은 충돌이 벌어졌다.

해리스 대사는 정병석 총장을 예방한 뒤 전남대 교내에서 대학생 모임과 비공개로 만날 예정이었다.

그가 경찰이 확보한 통로를 이용해 총장실에서 나온 뒤 예정대로 모임에 참석했다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했으나 일정을 바꿔 광주항구를 방문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6일 광주 전남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경찰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방문에 반대하는 학생들을 제지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10여명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 책임이 미국 정부에 있다며 이날 해리스 대사의 전남대 방문을 반대했다. /연합뉴스

완도해경, 대모도 인근해상 어선 침몰...선원 구조

완도해양경찰서는 완도군 대모도 인근 해상 어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돼 침몰됐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6일 새벽 5시경 어선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 구조대를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완도해경 경비함정기 소

화포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려 했으나, 어선은 현재 전소돼 침몰했다. 선장은 인근에 있던 어선 구조대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완도해경은 선장 및 인근어선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완도=유대성 기자 yds@

초등생 성추행 한의사 10년 만에 처벌

10여 년 전 치료를 받으러 찾아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70대 한의사가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인 피고가 어린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다”

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고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가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 B(당시 11세)양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씨는 10여 년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으나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하자 올해 초 가족들에게 사실을 밝히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박승아 기자 tmdk9960@

경찰, 여성 상대 범죄 단속...447명 검거·구속 14명

광주지방경찰청은 5월 17일부터 100일간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집중 단속해 44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기간 적발된 성범죄 사범은 304명(구속 12명), 불법 촬영·유포·판매 34명,데이트폭력 109명(구속 2명)이다.

경찰은 여성청소년, 수사, 형사 등 7개 과가 참여,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예방 활동을 펼쳤다.

공중화장실, 물놀이 시설 등 916개소에 대해 불법 촬영장비 설치 여부를 점검, 낙서, 구멍 등 불안요소를 개선했다.

가정폭력 현장에서는 가해자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처벌의사에 따르는 관행을 탈피, 적극 대응에 나섰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전담팀을 꾸려 대응했다.

스토킹 범죄 신고 20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엄정 대처했다.

/강상구 기자 rkdtkdrn0913@

사람이 우선입니다
고속도로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